

국제 사료곡물시세 동향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제공〉

■ 120불에서 안정 유지

9월이후 다소 강세현상을 보여오던 미산 옥수수시세는 12월에 들어서면서 C&F 톤당가격기준으로 120~130불선에서 강세현상을 지속해오고 있다.

최근 옥수수 시황을 강세로 몰아오고 있는 주요인을 보면 미산 옥수수의 대풍에도 불구하고 농가출하물량이 감소했고, 수입국들의 수입수요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기불순으로 인한 수확작업의 지연도 그동안 미산 옥수수시세를 강세로 끌고 왔으며 아직도 수확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전같으면 이미 미국 콘벨트지역의 수확이 완료되었을 시점이나 금년에는 콘벨트지역 일부에서 강설이 있고, 동결되었던 토양이 기온상승으로 해빙되면서 수확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즉 지난 12월 8일 현재 미산 옥수수 수확 진전상황을 보면 89%가 완료되어 지난 해 동기의 98%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도 미산 옥수수의 강세요인으로 US 달러시세의 약세 등을 들을 수 있으며 특히 Gulf 지역에서의 강세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미시시피강 상류지역이 동결되면서 바지(Barge) 수송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 태국·중공 수출경쟁력 지녀

전반적으로 미산 옥수수시세가 120불 선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태국산, 중공산 옥수수시세는 100~120불선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금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지난 84/85년에 비해 45%증가가 예상된다. 미국 이외의 옥수수생산국으로 수출여력을 지니고 있는 나라는 태국, 중공,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중 태국과 중공이 한국 시장에 대해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2월 13일 미농무성이 발표한 주요국별 옥수수 수출예상을 보면 태국과 아르헨티나의 수출물량이 크게 늘어날 예상이고, 미국과 중공 등의 수출물량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Thai Maize는 공급자 선정이 관건

현재 옥수수 수출여력을 지니고 있는 5개국 중 동남아시장에 대해 가장 높은 가격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국가는 태국으로 현재 C&F 톤당 103~110불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태국산 옥수수의 경우 모선별로 아플라톡신 함량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에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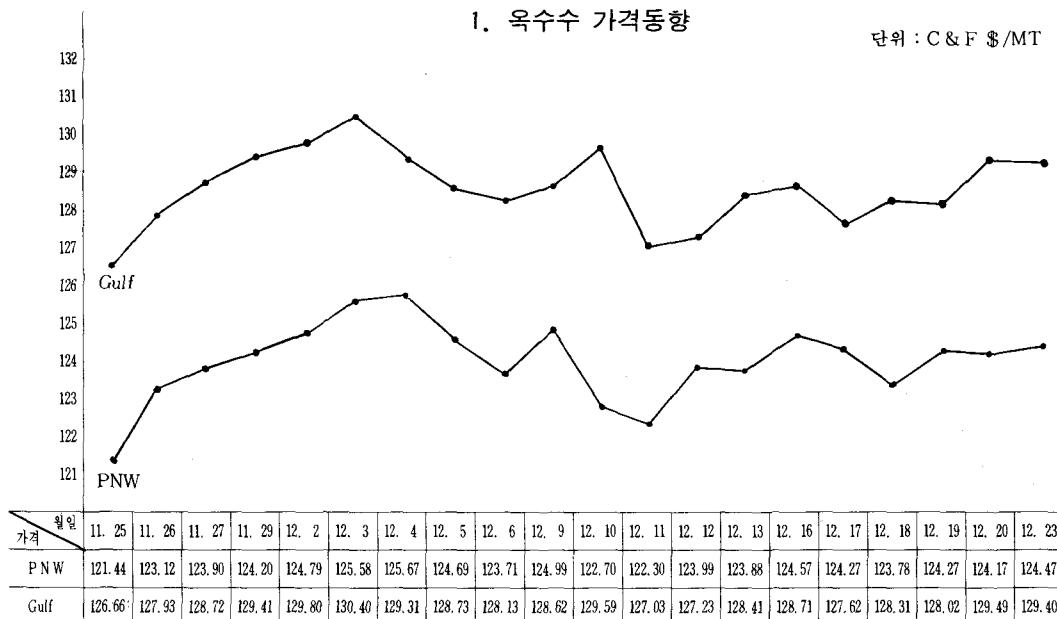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사료협회 공동구매분 옥수수는 20~25 ppb내외의 아플라톡신 함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실수요자 구매분은 아플라톡신 함량이 이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이는 주로 태국내 공급자측의 문제로서 믿을만한 공급자와 계약이

맺어질 경우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얼마전 일본에서 태국산 옥수수 1만톤을 UMC와 Capital로부터 시험구매한 결과 수분 13

~13.5%, Damage와 이물질은 없고, 아플라톡신 15ppb로 품질이 상당히 양호했으며, 가격도 미산 옥수수에 비해 5불낮게 계약이 이루어졌다.

1. 옥수수 가격동향

단위 : C & F \$/MT



2. 대두 가격동향

단위 : C & F \$/MT





■ 아르헨티나 홍수 피해

PRC 옥수수는 미국산 옥수수에 비해 5불정도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면에 있어서는 태국산 옥수수에 비해 크게 불리한 입장이나 품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은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PRC 옥수수가 갖고 있는 교역상의 risk를 최소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입상품이 입항하고 난후 자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가고 있다.

또한 남미의 아르헨티나 역시 금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수출물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지역 수출물량은 주로 EC와 소련 등지로 나가며,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경우 항해일수와 선임면에서 크게 불리한 실정이다.

한편 최근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하여 85/86년도 곡물생산이 다소 하향조정되었고, 남동부와 북서부 등 옥수수 재배지역도 홍수피해로 인하여 식부작업이 지연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식물성 박류시세 강세

전반적으로 옥수수, 대두, 기타곡물들이 낮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대두박시세는 6월 이후 지속적인 강세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대두박시세의 강세현상은 세계대두 박수급을 좌우하는 남미산 대두박재고가 급격히 감소한데 기인하고 있다. 즉 12월 11일 미농무성이 발표한 세계대두박 재고상황을 보면 기초재고의 경우 아르헨티나가 전년대비 27%, 브라질의 경우 36%감소 하였으며, 세계전체적으로는 11. 6%가 감소하였다. 또한 금년도생 산량이 2. 3% 증가예상임에도 불구하고 기밀재고는 지난해 보다 3%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한국시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던 중공산 대두박 역시 재고 소진으로 인해 수출여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최근 미산 대두박시세는 C&F 톤당 가격으로 205

불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당분간 강세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리고 대두박을 대체할 수 있는 캐나다산 채종박 시세 역시 강세현상을 보여 최근 C&F 톤당 155불선에서 가격이 제시되고 있다.

■ 기타 곡물 전반적 약세

기타곡물 시세는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약세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공산 기타곡물시세가 낮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수수의 경우 현재 미산 수수가 C&F 톤당 110~120불선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데 반해, 중공산 수수는 89~93불의 낮은 선에서 시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맥은 호주산 소맥과 캐나다산 소맥이 공히 117~118불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품질면에서 캐나다산 소맥이 다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캐나다는 금년도 소맥 수확시에 피해입은 Damage Wheat를 100~150만톤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호주산 사료용 소맥과 국제시장에서 경합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호밀은 캐나다산이 105불, 폴란드산 95~100불에서 시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전반적으로 기타곡물시세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태국산 타피오카와 인도네시아 소맥피시세는 강세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산 소맥피의 경우 자체 소맥분 수급조절작업으로 인해 소맥피 재고물량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금후 C&F 90불 이하에서 구매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

BIN 의 대명사 평농축기!

STEEL BIN, FRP BIN

- 과학적 합리적설계로 언제나 신선하게 사료를 보관할 수 있고 외양이 미려하여 보기좋으며 우수한 품질의 인정된 재료는 오랜수명을 유지합니다.
- 다양한 규격생산공급
- 의장등록 제32612호



☆ 품질을 선택할 줄 아는 안목은 귀하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드릴 것을 확신합니다.

AUTOMATIC FEEDING SYSTEMS & INCUBATOR



平農畜機

〒180-86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가곡리 536-1
전화(033) 4-7484
야간(서울) 803-6724